

서양 기성복의 출현 배경과 그 유토피아적 성격

김 윤 희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Appearance of the Ready-to-wear Clothing in the West and Its Utopian Characteristics

Yoonhee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nam University
(투고일: 2014. 2. 6, 심사(수정)일: 2014. 3. 31, 게재 확정일: 2014. 4. 6)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social changes in the late 19th century that provided a historical background in the appearance of the ready-to-wear clothing in the West. It examines the social meanings of the appearance of the ready-to-wear clothing at the time and traces the origins of these social characteristics to the book published in the 16th century by Thomas More, *Utopi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appearance and expansion of the ready-to-wear clothing coincided with the social transition from a class-based society to a democratic society in the west in the 19th century. Second, uniforms were produced in the 18th century Europe in order to distinguish different classes and ethnic groups, with the military uniforms being the most visible example. Frequent military campaigns in Europe resulted in the increasing demand and expansion of military uniforms, which later became the basis of the standardization of the men's clothing with uniforms. Third, the women's ready-to-wear clothing appeared later than their male counterpart and was made possible by the simplification of design,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women's wear in the later period. Fourth,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ady-to-wear clothing can be traced to a democratic and egalitarian society without personal properties that was depicted in the book of *Utopia* by Thomas More. Fifth,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dy-to-wear clothing can be found in the description of *Utopia*, in which everyone in *Utopia* wears a clothing of the same form for life.

Key words: ready-to-wear clothing(기성복), simplification of design(단순화), standardization(획일화), utopia(유토피아)

I. 서론

현대인은 의복을 구입하여 입는다. 그러나, 1824년 파리에서 기성복을 파는 상점이 처음 등장하고 19세기말 서양복식사에서 기성복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기 전에는 상류층은 맞춤 의복을 입고, 중하류층들은 집에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렇듯 서양복식사에서 볼 수 있는 맞춤복에서 기성복으로의 이행은 이 기간 동안의 사회 변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이를 토대로 오늘날과 같은 패션 산업 형태의 기초가 마련되었을 것이다.

서양의 19세기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다윈의 진화론 등 다양한 사상들이 넘쳐나고, 18세기 중반 시작된 산업혁명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로, 당시 서양 사회 각 분야에서 있었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의복 소비가 늘어나고 의복의 기성복화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서양 패션의 이러한 기성복화가 19세기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배경에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의 패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서양복식의 기성복화는 곧, 현대화로 인식되면서, 주로 사회적 변화와의 관계나, 스타일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되거나, 복식사적 접근¹⁾이 대부분이어서, 보다 다각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19세기 말의 사회 변화, 복식 변화를 서양 기성복 출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특징을 당시 사회 변화의 지향점에 있는 유토피아론의 대표적인 저술인 16세기 토머스 모어의 책, <유토피아>에서 묘사된 유토피아의 사회, 복식의 특징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19세기 서양 기성복의 출현 배경이 되는 사회적 변화 및 서양 기성복의 특징에 대하여 고찰한다.

둘째, 유토피아의 의미를 논하고, 토머스 모어의 책, <유토피아>에서 묘사된 유토피아의 사회와 의생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다.

셋째, 19세기 기성복 출현 배경의 유토피아적 성격을 논의한다.

연구 방법은 서양사, 서양복식사에 관한 서적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적 고찰의 시기와 대상은 주로,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서양의 남녀 복식이고, 복식변화의 흐름을 논하기 위해서 그 이전 시기가 포함된 경우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성복화 과정에 영향을 준 사회적 배경을 구체화하고, 당시의 유토피아적 사상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더 나아가 미래복식에 대한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19세기 서양 복식의 변화

1. 19세기 서양의 산업혁명과 사회

서양 기성복의 출현과 확산의 과정은 18- 19세기 서양 사회의 변화에 기인할 것이다. 이 시기는 기술과 산업 및 상업 분야에서 개혁이 있었고, 개인과 익명의 군중이 중요해졌으며, 차이와 동일함을 동시에 장려한 시기였다.²⁾ 이 절에서는 복식 변화에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혁명과 그 결과로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한 계급갈등과 사회주의의 대두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1) 산업혁명

19세기 복식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 영국의 면직 공업과 광업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유럽의 경우, 나폴레옹 전쟁(1797-1815)으로 인해, 군복으로 쓰일 모직 의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³⁾, 영국의 경우에는 인도산 면직물 캘리코(calicoe)가 수입되어 중류층이나 하층민에까지 크게 유행하였다. 이어서 18세기부터 방직과 직조 관련 기계가 발명 또는 개량되어 방직과 직조 속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면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⁴⁾ 이에, 영국내 면직 공업이 모직 공업과 함께 주요 산업으로 등장하였다.⁵⁾ 유럽 본토의 경우에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 등에서 면직 공업이 뿌리를 내렸다. 프랑스 패션계의 요구에 맞는 견직 공업은 리옹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산업혁명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새로운 과학기술, 투자자본의 축적, 공장노동의 조직화, 도시의

성장, 통상의 확대 등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자본은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자본 가동의 수단도 다양해졌다. 인구도 증가하였고, 교통 운수 상황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부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⁶⁾ 이와 같이 19세기 서양의 산업 혁명으로 면, 모, 견직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는 패션 산업 변화의 시작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사회 변화의 배경이자, 문제의 원인이 되면서 유럽 사회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2) 계급 갈등과 사회주의

18세기 후반 및 19세기 전반, 산업 생산의 비약적 발전은 유럽 문명의 기본 특성을 바꾸어 놓았다.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계급 간의 대립과 빈부 격차가 일어나고,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 문제로 이슈화되어 유럽 각국에서 혁명과 개혁이 일어났다. 사회주의 이론이 강한 사회적 힘으로 대두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였다.⁷⁾ 새로운 계급, 즉 자본가와 노동자가 등장하였으며 자본 기업가들은 자본경쟁, 개인기업, 자본의 사유, 수요공급의 경제 원리 등을 강조하였고 노동자들은 독일 철학자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사회주의적 이념과 실천을 주장하여 계급 간에 새로운 갈등이 생겨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은 계속되었다.⁸⁾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가장 완전한 형태로, 19세기 초 사회주의는 산업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여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로 불리었다.⁹⁾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사회주의의 주장은, 19세기 중기 이후 노동자 폭력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발달로 유럽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였다.¹⁰⁾

이러한 기술 발달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불안하고 퇴폐적인 세기말(Fin de siècle), 그리고 희망의 좋은 시대(Belle Époque)가 이어졌다.

2. 19세기 서양 복식

19세기에는 기술 발달과 산업 혁명, 그리고 사회

적 변화로 인해 지금까지의 왕실 및 귀족 중심의 패션은 시민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인 패션으로 전환되었다. 이 절에서는 19세기 서양 복식의 변화 경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세계시민 시대와 제복의 영향- 남성복의 획일화

서양 남성복의 재단법과 형태는 넓게 보면 군인의 옷에서 진화한 것이다.¹¹⁾ 신구교 간의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1618-1648) 이후에 군이 상설기관으로 발전하였고, 이들을 위해 제복을 도입했다. 제복은 처음에는 보통의 남성복을 모방하였지만, 점차 상의의 옷자락이 옆쪽으로 비스듬히 재단되었고, 바지는 좁아졌고, 레깅스가 길어졌다. 군인들의 제복이 당시 귀족들의 의복에 비해 실용적이고 저렴하게 나오자, 제복을 입은 사람이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 경시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에는 제복 열풍이 불었다. 18세기 유럽은 주요 강대국 사이의 무역, 군사 경쟁이 심했고, 또, 각국의 군주들이 다가올 세계 시민의 시대에 대비하여 단속과 획일화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군복을 비롯한 제복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에, 군인은 물론, 교육기관과 고아원의 원생에게도 제복이 입혀졌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군주 중에 가장 먼저, 전적으로 제복만을 입었다.¹²⁾

그러나, 당시 제복은 남성복에 국한되어 있었다. 19세기부터 새롭게 진화하기 시작한 남성 복식은 형태적인 면에서는 군인들의 제복과 마찬가지로 딱딱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으며, 색상 조화에서는 이전의 귀족적인 화려한 색상 조화와 반대되는 점잖은 색상들을 채택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프랑스의 부르주아 계급은 왕의 절대 권력을 붕괴시키고, 의회 의석을 차지할 권리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귀족의 나태함과 사치를 보여주는 옷감이나 장신구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새로운 사회 정치 질서에 맞는 새로운 미학적인 기호를 보여주려고 하였다.¹³⁾ 따라서, 이 시기의 남성 복식은 다가올 세계 시민의 시대에 걸맞은 획일화된 제복의 영향을 받아, 형태와 색상에 화려함 보다는 엄격한 금욕주의적 미학을 보여주었다.

2) 코르셋의 폐해에 대한 인식과 이성주의 복식 운동- 여성복의 단순화

16세기 초부터, 여성복은 남성복을 모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복식사에서 시기별 남성복과 여성복의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해졌다. 그런데, 18세기 남성복에서 제복의 영향이 커지면서, 남성복은 점차 획일적으로 변했고, 일정한 공식에 따라 현대적인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반면, 여성복은 엠파이어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 등, 실루엣에서 변화는 있었으나, 현대적인 형태의 추구 보다는 과거와 같이 여성복의 기본 형태 위에 직물 표면의 장식 효과에 더욱 치중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¹⁴⁾ 이 가운데 엠파이어 스타일은 인공적으로 치마를 받쳐 주던 페티코트를 없애 H 실루엣을 보여준 스타일로, 이후, 자연스러운 여성 인체미를 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엠파이어 스타일이 등장했던 시기는 프랑스 혁명 이후인 18세기말, 19세기 초의 시기로, 사회적으로는 시민 계층이 성장하고, 개인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여 귀족 중심의 복식에서 대중의 복식으로 복식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¹⁵⁾ 그러나, 곧이어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실각하고 제2제정 시기로 접어들면서 코르셋이 재등장하는 로맨틱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지만, 1850년 아멜리아 블루머가 블루머를 입기 시작하면서, 코르셋과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버슬 스타일이 비위생적이며, 건강에 좋지 않고, 남성에 대한 종속을 의미한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연이어 등장했고, 이성주의 복식 운동이 일어났다.¹⁶⁾ 이러한 움직임은 18세기 초 딱딱한 틀이 있는 코르셋을 폐기하기에 이르렀고, 이미 현대적인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던 남성복 보다는 늦었지만, 곧이어 여성들을 각성시킴으로써 여성복에서 인체미를 살리는 디자인 보다는 단순한 디자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때 기성복은 여성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는 단순화하면서 동시에 다수 여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덕분에 여성복의 가격이 저렴해졌고 스타일은 균일해졌다.¹⁷⁾ 산업혁명 이후 풍부해진 직물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산업 혁명의 결과로, 경제적 불균등이 낳은 평등에 대한 요구가 많은 사람들이 기성복을 입게

되면서, 표면적으로 해소되는 듯한 모양새를 띠는 점이 흥미롭다. 19세기 사람들이 기성복을 입음으로써 이전 시대에 비하여, 겉모습은 유사하게 되었고, 신분의 차별은 물론 연령에 따른 구별도 사라졌다. 이것이야 말로, 패션의 획일화 또는 민주화이며, 이러한 추세는 남성복에서 훨씬 두드러졌다.¹⁸⁾

3. 서양 기성복의 확대

기성복은 고객의 특별 주문에 따라 만든 옷과는 달리 제조업자에 의해 표준 치수로 만들어진 것으로, 대중의 호응을 얻기 위해 대량 생산된 의복이다.¹⁹⁾ 18세기 영국에 큰 규모의 아동 기성복 시장이 생겼으며, 18세기 말, 프랑스 파리의 중고 의류를 파는 상점들은 맞춤복점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아 남게 된 의류들을 넘겨받아 팔기 시작했고²⁰⁾, 직물 가게에서 팔다 남은 옷감을 사서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가내 수공업 형태로 새로운 의상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 시장에 큰 자본이 들어오고, 산업화되면서, 1824년 <La Jardinière>라는 첫 기성복 판매점이 파리에 개점하기에 이르렀다.²¹⁾ 미국에서는 1825년 조지 오펜다이크(George Opdyke)가 뉴욕에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의류를 만들기 시작한 것을 기성복의 시작으로 일컫고 있다.²²⁾

새롭게 출현한 기성복은 새로운 중간 계층이 주고객이었으며, 불과 20년 뒤인 1844년 프랑스에 225개의 기성복업체가 생길 정도로 융성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도매로 재료를 사거나, 기계로 재단하는 법, 새로운 기계들을 작업실에 배치하는 법, 외부의 노동자들에게 일을 맡기는 법 등에 대한 전문가가 새로이 생겨났다. 1830년에 재봉틀의 원형이 발명되었고, 미국의 싱거(Singer) 재봉틀 회사가 이 재봉틀의 원형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로써, 의류 제조 시간이 단축되어 기성복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기성복의 발전은 미국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상점에 가는 데 거리가 멀고, 똑같은 옷을 입은 다른 사람을 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의복 생산자는 수천개의 상점과 잡지들을 통해 생산한 의복을 대중에게 알려 판매하게 되었고, 이는 기성복의 소비를 촉진하였다. 직물 산업의 급성장,

기성복 시장의 비약적 발전, 기성복을 활발하게 유통 시킨 백화점들의 선전 속에서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현옷 시장은 쇠락하기 시작하였고, 그 때까지 옷차림으로 구별되었던 계층들은 이제 평준화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세련된 예의는 물론 보다 우아한 남성 양복을 매일 갖추어 입었다. 유행의 전파와 유통, 그리고 혁신이 더욱 더 가속화되면서 여성들을 위한 '위대한 맞춤복(Grande Couture)'도 즉시 명성을 얻었다.²³⁾ 미국의 경우 1860년대에 처음 나타난 백화점은 다양한 상품을 쌓아 놓고 팔았으며 기성복이나, 맞춤복 모두를 판매하였다. 물건을 사기 위해 도시로 나올 수 없는 소비자들은 많은 상품들을 우편주문 카탈로그를 통해 살 수 있었다.²⁴⁾ 남성복에서 제복의 도입으로 이루어진 획일화, 여성복에서 코르셋의 폐기로 야기된 단순화는 이제 남녀복식에서 기성복의 출현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III. 유토피아의 개념

이 절에서는 19세기 사회 변화가 지향하였던 유토피아의 건설과 복식 변화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유토피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유토피아에서의 생활 전반, 특히 의생활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때,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된 <유토피아> 가운데 판매량이 많은²⁵⁾ 책 3권²⁶⁾을 선정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1. 유토피아의 의미

유토피아는 그리스어에서 'not, no'의 의미를 지닌 'ou'와 'place'의 뜻을 지닌 'topos'가 합쳐진 단어로, 'utopia'로 쓸 때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외딴 곳(an imaginary and indefinitely remote place)'을, 'Utopia'로 쓸 때는 '법, 정부, 사회적 조건이 완전한 이상적인 곳(a place of ideal perfection especially in laws, government, and social conditions)'을 의미한다.²⁷⁾ 이 단어는 1516년 영국인 토머스 모어가 발표한 책 <유토피아(Utopia)>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유토피아는 이 허구소설의 제목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자 토머스 모어의 소설에서 묘사된 대서양의 한 섬의 이름이다.²⁸⁾

유토피아는 정치, 종교, 사회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꿈틀대던 16세기 유럽 사회가 저술의 배경이 된다.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은 모어, 페터 힐레스(모어의 친구이며 프랑드르의 인문주의자) 그리고 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가상의 인물로 포르투갈 선원) 간의 철학적 대화 형식이며, 2권은 저자가 안트베르펜에서 히슬로다에우스를 만나 나눈 이야기로, 유토피아의 지리적 위치, 도시, 관리들, 노동관습, 사회관계 등 환경과, 도덕, 결혼, 재판, 종교 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1권과 2권에서 모어가 그리고 있는 세계는 현실의 디스토피아와 가상의 유토피아의 대비이다.²⁹⁾³⁰⁾

유토피아에는 모어의 공산주의적 이상국가관과 인문주의적 교양이념이 실현되어 있어, 후대의 모든 유토피아론의 모델이 되고 있다.³¹⁾³²⁾ 또한 토머스 모어의 초고를 기초로 에라스무스 등 당대 인문주의자들이 편집하고 수정하여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당대 인문주의 공동의 산물이다.³³⁾ 유토피아에서 흥미로운 점은 모어가 이 책을 통하여 당시의 유럽, 특히 영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비판했으며, 종교적 관용과 평화주의, 남녀교육의 평등 등을 주장하고 청빈과 검소함을 실천하는 경제적 평등사회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책이 쓰여진 1500년대 초반은 서양의 르네상스 시기에 해당되며,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통치하던 시기로, 이처럼 혼란하고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유토피아>와 같은 책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³⁴⁾

사실, '유토피아'라는 단어 자체는 토머스 모어가 처음 쓴 것이지만, 이상 사회에 대한 탐구인 유토피아론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유토피아론으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n)의 <국가(politeia)>(B.C.4-5세기), 토마스 캄파넬라(Tommaso Campanella)의 <태양의 나라(civitas solis)>(1623년),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새로운 아틀란티스(New Atlantis)>(1624년)가 있다.³⁵⁾ 서양에서 유토피아론은 사회 변화의 한 방향점을 설정해 주기

도 하였으며,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2. 유토피아에서의 사회 묘사

이 절에서는 서양에서 대중화 사회로 변화해갈 때, 사회 체제 유지에 대한 이념적 틀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의 근원과 이상적 의생활의 구체적 모습을, 이상향을 그리고 있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찾아 보고자 한다.

<유토피아> 2권에서 유토피아에 다녀와서 유토피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화자인 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는 다음과 같이 유토피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요약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인 동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에 걸맞는 특징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 나라는 내 판단으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공화국(commonwealth, 공익³⁶), 공공복지³⁷)로 해석하기도 한다.)일 뿐 아니라, 아마도 공화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토피아에서는 개인적인 일이 아예 없고 모든 사람이 공공사업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것이 공유이므로 공공창고가 비치 않는 한 누구도 필수품 부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배는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빈민도 없고 결인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유하는 바가 없지만 모든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³⁸⁾

1) 공동 소유 사회와 민주주의적 체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곳, 자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노동의 동기가 없는 곳, 개인 재산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공동소유사회인 유토피아에서 풍성하고 유복하게 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저자의 말에 라파엘 휘슬로다에우스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공산주의 사회를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5년을 머물러 있었으며, 이런 신체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결코 떠나지 않을 터이니, 결단코 말씀드리거나 당신도 유토피아처럼 잘 조직된 나라를 다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실 겁니다.”³⁹⁾

또한 정치는 민주주의적 체제로 이루어지는데, 매

년 각 도시국가는 사리에 밝은 세 명의 장로들을 아마우로툼(유토피아의 수도)에 위치한 의회로 파견하며 이들은 섬 전체의 공적 문제를 처리한다.⁴⁰⁾ 일년에 한번 30가구가 모여 촌장(시포그란투스)을 뽑고, 다시 군수가 10명의 촌장을 이끈다. 한 도시 국가의 촌장 200명이 모여 총독 1명을 선출한다. 총독은 독재험의가 보이지 않는 한 종신직이며, 군수는 매년 선출되고, 연임 가능하며, 나머지 모든 관직은 일년 임기 단임제로 운영된다.⁴¹⁾ 어떤 도시국가도 영토를 늘려야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토지를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다만 경작지로 여기기 때문이다.⁴²⁾ 토머스 모어는 이러한 서술을 통하여 당시 영국 사회와 대비되는 이상적 경제, 사회 상황을 그리고 있다.

2) 직업과 노동 기회의 균등

유토피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알맞은 직업을 가지며, 무위도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유토피아에서의 직업과 노동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 토머스 모어는 모두가 일하며 누구도 후사당하지 않는 노동 환경에 대해 이상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는 외에 각자 자신의 일을 한 가지씩 더 배웁니다. 그것은 모직이나 아마포 같은 직물업, 석공, 철공, 목공 등의 일입니다.” “농업 외에 두 번째 직종의 일을 배우는 데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여성은 힘이 약하므로, 모직이나 아마포 생산 같은 가벼운 일을 맡고, 힘이 많이 드는 일은 남성이 맡습니다.” “시포그란투스의 주요 임무 내지는 거의 유일한 임무는 아무도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지 않고 모두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어느 누구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짐승처럼 후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니다.”⁴³⁾

3. 유토피아에서의 의생활에 대한 서술

토머스 모어는 영국에서 귀족 출신으로 태어나 당시 왕인 헨리 8세가 앤 불린과 재혼하려 하자 이에 반대함으로써 반역죄로 체포되어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⁴⁴⁾ 그가 체험한 권력의 허무함과 신앙인으로서의 철저함은,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글로 표현하는데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세속

적인 안락함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항상 거친 모직 셔츠를 입었다”는 자신의 검소한 의생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⁴⁵⁾, 책 〈유토피아〉에서의 그의 의생활 묘사가 더욱 흥미롭다.

토머스 모어가 이 소설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상적인 의생활은 다음과 같다.

“그들의 의복은- 남녀 사이의 구별과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의 구별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섬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평생을 통해서 같고, 또 보기에도 결코 나쁘지 않으며,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한 점이 없고, 더위나 추위를 가리지 않고 입을 수 있는데- 이런 의복을 각 가정에서 각자 만들어 입는단 말이어요.”⁴⁶⁾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자신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런 거짓 쾌락을 추구하는 무리에 포함시킵니다.”⁴⁷⁾ “허술하게 옷 입은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에게 유토피아 사람들은 분노를 표했던 것입니다.”⁴⁸⁾

“의복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적은 노동이 투입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작업을 할 때는 적당히 만든 가죽 옷이나 모피 옷을 입는데, 이것을 7년 동안 입습니다. 공적인 모임에 나갈 때 그들은 거칠게 만들어 입은 작업복 위에 외투를 걸쳐 작업복을 감춥니다. 섬 전체를 통틀어 외투는 동일한 색깔이며, 재질 또한 양털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겐 양털 옷감이 다른 어느 곳에 비해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며 설령 필요하더라도 그다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수고가 덜 들어가는 아마포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아마포의 순백색을 즐기며, 양털 옷감은 깔끔한 것을 제일로 여기고 옷감의 섬세함에는 값어치를 두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네다섯 가지 다른 색깔 양모 외투와 비단옷에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유토피아에서는 모두가 외투 한 벌에 만족하며 일반적으로 2년 동안 외투 한 벌을 사용합니다.”⁴⁹⁾ “유토피아 사람들은 자연이 준 육체 그대로를 아름답다고 여기며, 이를 돌보지 않는 것을 게으르고 나태한 일이라고 생각한 반면, 화장품으로 치장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⁵⁰⁾

“그들은 금과 은을 단순히 금속 재료라고만 생각할 뿐이며, 이를 강철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강과 허드레 그릇 등 마을회관이나 가정에서 아무렇게 쓰는 물건을 금과 은으로 만들어서 씁니다. 나아가 노예를 구속하는 사슬이나 족쇄를 금과 은으로 만들어 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창피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은 누구나 금과 은으로 만든 귀고리와 반지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금과 은을 불명예의 상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초개와도 같이 쉽사리 내놓게 됩니다.”⁵¹⁾ “유토피아에서는 화려한 의복이 존경받지 못하며, 비단은 경멸의 대상이며, 금 역시 오히려 수치의 표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⁵²⁾

위의 예를 봤을 때 토머스 모어가 생각하는 이상적 의생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상복으로 입기에 적당한 검소하고 실용적인 옷을 입는다.

둘째, 남녀, 결혼 여부에 따라 다른 형태의 옷을 입으나, 평생 동안 같은 형태의 옷을 입는다. 한 사람이 입는 의복의 개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셋째, 가죽, 모피, 아마포로 만든 의복을 입으며, 섬 전체 사람들이 동일한 색채, 재료의 옷을 입는다.

넷째, 허술한 옷을 입었다고 하여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다섯째, 화장품으로 치장하고, 금은 보화를 두르는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장식이 없이 실용적인, 동일한 형태의 의복이라는 점에서는 오늘날의 제복에 가까운 의복임을 알 수 있고, 오랜 기간 같은 의복을 입는다는 점에서는 유토피아가 유행이 없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책 〈유토피아〉가 쓰여진 시기인 1500년대 초반 영국에서는 신홍 부르주아가 대거 귀족으로 편입되었고, 새로이 귀족이 된 이들이 노동계급에 속하는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의복에서 사치를 심하게 하게 되면서 복식 금제령이 보다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하였다.⁵³⁾ 새로이 재편되는 계급간의 복식을 통한 경쟁과, 사치, 그리고, 남성 군복에서조차 본격적으로 제복이 출현하지 않았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시 부르주아 계층과 귀족들의 맞춤형 의복과 사치에 환멸을 느낀 저자가 대안으로 제복을 상상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생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4. 서양 기성복 출현의 유토피아적 특징 논의

이 절에서는 19세기 서양복식사에서 기성복이 출현한 배경 및 복식 변화의 특징을 토머스 모어의 책 〈유토피아〉에서 묘사된 의생활의 특징에서 도출할 수 있었던 유토피아적 특징으로 해석,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19세기 산업 혁명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와 계급 갈등으로 대두된 사회주의는 책 〈유토피아〉에서 묘사되고 있는 공동소유사회의 민주주의 체제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16세기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아)가 당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16세기부터 인지되기 시작하였던 서양 사회의 부의 불평등 문제는 산업 혁명 이후 부르주아 계층이 더욱 성장하고, 노동자 계층이 이를 자각하게 되면서 더욱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그려진 공동소유사회의 민주주의 체제는, 상이한 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광의의 개념으로는 19세기 노동자 계층 주도의 사회주의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유토피아>에서 의생활에 대한 묘사를 정리한 결과, <유토피아>의 의생활의 특징은 실용성을 중시하고,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유행이 없으며, 사치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같은 옷을 입는다는 의미에서, 실용/ 검소/ 평등으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표 1>과 같이 <유토피아>의 의생활 특징은 19세기 의생활의 특징이자, 기성복의 출현 배경이기도 한 의복의 단순/ 획일과 대비되는 점과 유사한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셋째, 19세기의 의생활의 단순 특징은 <유토피아> 의생활에서 실용 특징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기성복 디자인의 단순화는 기성복 대량 생산을 위한 표준화를 위한 것이었고, <유토피아> 의생활의 단순화는 검소함과 관련있는 실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넷째, 19세기의 의생활 특징 가운데 하나인 획일은

<유토피아> 의생활에서 검소/ 평등의 특징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논할 수 있겠다. 대중화 사회에서의 기성복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나, 당시 대다수의 유토피아론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기성복의 보급으로 맞춤복이 쇠퇴하고, 노동자 계층까지도 기성복의 소비자로 부상하는 등, 기성복화는 곧, 의복에 있어서의 평등으로 이어졌다. 의복에서 평등의 의미는 이제까지 맞춤복을 입던 시절에는 소외되었던 노동자 계층까지 의복을 사서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세기 평등에의 요구는 산업혁명 이후 부의 불평등이 대두되면서 함께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의 불평등과 부의 확산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성복의 소비자는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진행되고, 기성복 산업도 한층 활발해지면서, 이전 시대와는 달리, 성, 계급에서는 어느 정도 평등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같은 듯 보이는 의복 형태에 소재나, 디테일에서 미묘한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기성복이 전개되면서, 평등의 의미가 퇴색하였다.

다섯째, 유토피아는 한 사람이 평생 몇 벌의 의복만으로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사치도 없고, 유행도 없는 사회로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역동적인 계급 변동이 있었던 19세기의 서양사회는 익명성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착용자의 신분과 부를 드러내는

<표 1> 19세기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의생활 특징 비교

의생활의 특징		의생활의 특징		의생활에 대한 묘사	
19세기	단순	vs.	실용	→	모어의 유토피아
	획일		검소	→	
평등			→		

의복의 기능이 강화되어, 경쟁적 옷입기가 더욱 강조되었다. 이로써 계급 간의 옷 입기를 통한 차별과 동조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유행은 더욱 빨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논의한 결과, 19세기 서양 기성복 출현 배경의 사회주의는 유토피아 사회에서의 재산의 공동소유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며, 의복에서 19세기 기성복의 획일, 단순의 특징은 유토피아 의생활의 실용, 검소, 평등의 특징과 유사한 동시에 대비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서양 패션의 기성복화가 19세기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사회적 배경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에 19세기 말의 사회적, 복식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서양 기성복 출현 배경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토머스 모어의 책, <유토피아>와 당시 사회적 배경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째, 19세기 서양에서 산업혁명과 사회주의의 대두, 그리고 이어서 대중화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때, 서양 기성복의 출현, 확산도 함께 진행되었다.

둘째, 18세기 유럽에서 서로 다른 계층과 민족을 복식으로 구별하려는 의도로 본격적으로 제복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군복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유럽에서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한 군복 수요의 증가와 남성복에서 군복의 확산, 이후 제복을 통한 획일화는 기성복의 한 특징이 되었다.

셋째, 남성복에 비하여 늦게 진행되기 시작한 서양 여성 기성복의 출현은 먼저, 기존 여성복 디자인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디자인의 단순화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서양 현대 기성복의 한 특징을 형성하였다.

넷째, 서양 기성복 출현 당시의 서양 사회에 만연했던 사회주의적 이념의 특징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그려진 사유재산이 없는 이상적인 민주

주의 체제 하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특징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다섯째, 이전 시대와는 다른 서양 기성복의 단순/획일 특징은, 모든 유토피아인들이 동등한 형태의 의복을 일생동안 입는다는 실용/검소/평등의 의생활 특징과 마찬가지로 유토피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화사회로 가는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수의 사람이 동일한 옷을 입게 되는 의복의 기성복화로, 패션은 개성의 표현 또는 유행, 그리고 획일화 또는 민주화라는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공존하는 것이 되고 있다. 기성복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의복이 완성되어 판매됨으로써 패션의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기성복화가 진행되면서, 패션은 개성의 표현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나,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소비되고, 또한 계급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지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된 것이다.

참고문헌

- 1) Hollander, Anne (1992), *The Modernization of Fashion, Design Quarterly*, 154, pp. 27-33;
이연희 (1989), 기성복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980년대 디자인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신미, 이재정 (2010), 1900년대 여성패션의 현대화양상 고찰,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3), pp. 115-133.
- 2) Perrot, Philippe (2007), *부르주와 사회와 패션*, 이재한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p. 9.
- 3) Burns, E. M., Lerner, R. E., & Meacham, S. (1996), *서양 문명의 역사-하*, 서울: 소나무, p. 876.
- 4) 차하순 (2000), *새로 쓴 서양사총론2*, 서울: 탐구당, pp. 726-727.
- 5) 차하순 (2000), *op. cit.*, p. 725.
- 6) Burns, E. M., Lerner, R. E., & Meacham, S. (1996), *op. cit.*, pp. 731-732.
- 7) *Ibid.*, p. 841.
- 8) 차하순 (2000), *op. cit.*, pp. 722-723.
- 9) Burns, E. M., Lerner, R. E., & Meacham, S. (1996), *op. cit.*, pp. 841-842.
- 10) 김민자, 최현숙, 김윤희, 하지수, 최수현, 고현진 (2010), *서양복식멀티콘텐츠*, 서울: 교문사, p. 328.
- 11) Hopkins, John. (2011), *팬츠웨어*, 김윤희 외 역, 서울: 교문사, p. 27.
- 12) von Boehn, Max (1998), *패션의 역사*, 천미수 역, 서울: 한길아트, pp. 95-96.
- 13) Perrot, Philippe (2007), *op. cit.*, p. 71.

- 14) Hollander, Anne (1992), *op. cit.*, p. 29.
- 15) 김민자, 최현숙, 김윤희, 하지수, 최수현, 고현진 (2010), *op. cit.*, pp. 284-285.
- 16)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1*, 서울: 교문사, pp. 56-59.
- 17) von Boehn, Max (1998), *op. cit.*, p. 372.
- 18) *Ibid.*, p. 155.
- 19)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1999),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p. 47.
- 20) Garland, Madge (1970), *The Changing Form of Fash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p. 124.
- 21) Boucher, François (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 360.
- 22) 이연희 (1989), *op. cit.*, pp. 4-5.
- 23) Perrot, Philippe (2007), *op. cit.*, p. 12.
- 24) Tortora, P. & Eubank, K. (1998), *Survey of Historic Costume*,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p. 326.
- 25) <http://book.naver.com/search/search.nhn?query=%EC%9C%A0%ED%86%A0%ED%94%BC%EC%95%84>
- 26) More, Thomas (2007), *유토피아*, 주경철 역, 서울: 을유문화사.
- More, Thomas (2005), *유토피아*, 나종일 역, 서울: 새해문집.
- More, Thomas (2011), *유토피아*, 김남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 27)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utopia>
- 28) <http://en.wikipedia.org/wiki/Utopia>
- 29) More, Thomas (2007), *op. cit.*, p. 168.
- 30) *Ibid.*, p. 172.
- 31) Schuwanz, Dietrich (2001), *교양 인성기*, 윤순식, 조우호, 김길웅 역, 서울: 들녘, p. 705.
- 32) More, Thomas (2005), *op. cit.*, p. 113.
- 33) More, Thomas (2011), *op. cit.*, p. 9.
- 34) More, Thomas (2005), *op. cit.*, p. 64.
- 35) *Ibid.*, pp. 140-141.
- 36) More, Thomas (2011), *op. cit.*, p. 253.
- 37) More, Thomas (2005), *op. cit.*, p. 173.
- 38) More, Thomas (2007), *op. cit.*, p. 150.
- 39) More, Thomas (2011), *op. cit.*, pp. 131-132.
- 40) *Ibid.*, p. 142.
- 41) *Ibid.*, pp. 149-150.
- 42) *Ibid.*, p. 143.
- 43) More, Thomas (2007), *op. cit.*, pp. 72-73.
- 44) More, Thomas (2005), *op. cit.*, pp. 5-9.
- 45) *Ibid.*, p. 6.
- 46) More, Thomas (2005), *op. cit.*, pp. 81-82.
- 47) *Ibid.*, p. 113.
- 48) More, Thomas (2011), *op. cit.*, p. 167.
- 49) *Ibid.*, p. 159.
- 50) *Ibid.*, p. 210.
- 51) *Ibid.*, pp. 172-174.
- 52) More, Thomas (2005), *op. cit.*, p. 103.
- 53) Perrot, Philippe (2007), *op. cit.*, pp. 40-41.